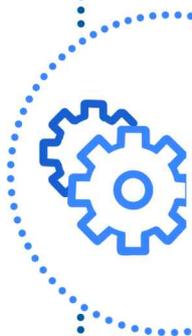




목 차

	인슈어테크 동향	23
해외	- 미국 인슈어테크 시장 투자 활동 동향	23
	- AI 챗봇과 생성형 AI의 보험 청구 프로세스 혁신	24
	- QBE, AI 기반 인슈어테크를 활용하여 보험 청구 프로세스 개선	25
	- Prudential이 AI와 보험의 결합을 위해 Google Cloud와 협력	26
기업	- “홍수 나면 보험금 지급”...지수형 날씨 보험 나온다	27
	- MZ세대 고객 모시기...보험업계, ‘임베디드 보험’ 시장 선점 경쟁	28
	- 메리츠화재, AI기술 접목으로 “고객 이해도·편의성 향상”	29
	- KB손보, 생성형 AI 주목...디지털 고도화로 ‘똑똑한 보험’ 만든다	30
	- 5m 높이서 추락했는데 단순 타박상...웨어러블 스마트 안전기술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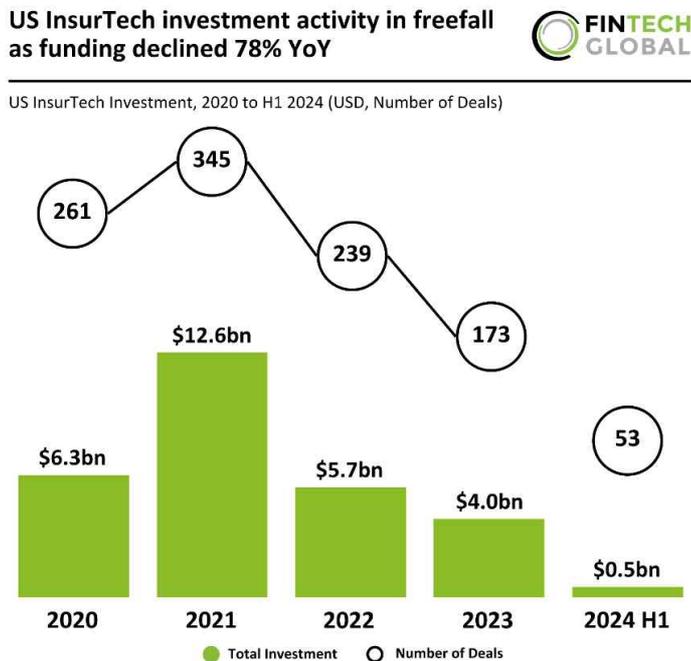




미국 인슈어테크 시장 투자 활동 동향

- 2024년 상반기 미국 인슈어테크 분야의 투자 규모가 작년 상반기 대비 감소
 - 2024년 상반기 거래 건수는 53건으로 작년 상반기 93건 대비 43% 감소하였으며 자금 조달 또한 5억 달러로 작년 상반기 23억 달러 대비 78% 급감
 - 2024년 전체 예상 총 거래 건수는 106건으로 추정되며 이는 작년 153건에서 30% 감소한 것

<미국 인슈어테크 시장 투자 규모 추이>



Source: FinTech Global Research

- 미국의 헬스케어 기술 및 인슈어테크 기업인 'Healthee'는 3,2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통해 2024년 상반기 미국에서 가장 큰 인슈어테크 거래를 확보
 - Healthee의 플랫폼은 기업고객의 고용주와 직원의 건강관리를 통해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맞춤형 질병 예방 솔루션 등 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 이번 자금 확보를 통해 Healthee는 제품 개발과 사업 확장에 힘써 산업 내 영향력을 키울 계획
- 캘리포니아는 인슈어테크의 선도 지역으로서 미국 내 인슈어테크 거래의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음
 - 2024년 상반기 캘리포니아 내 인슈어테크 거래 건수는 15건으로 미국 전체의 28.3%를 차지

출처 : FINTECH GLOBAL(2024.08.20.) US InsurTech investment activity in freefall as funding declined 78% YoY





AI 챗봇과 생성형 AI의 보험 청구 프로세스 혁신

- Gallagher Bassett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글로벌 보험사들이 고객센터와 청구, 위험관리, 인수 등의 과정에서 AI 챗봇과 생성형 AI의 적극적인 활용에 나서고 있음
 - * 북미,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150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조사
 - 보험사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주요 영역은 고객센터(67%)와 청구 프로세스(45%)이며 위험관리(31%), 인수(25%)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
 - 다수의 보험사(42%)들은 AI 챗봇이나 생성형 AI를 청구 프로세스에 이미 도입하였으며 44%는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 있음
- 보험사들은 사회적·경제적·지리학적 요인의 영향으로 과거 청구 데이터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AI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다면 더 정확한 예측과 그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짐
 - 특히 자동차보험과 같이 자주 일어나지만 손해액 규모가 크지 않은 분야의 청구 프로세스에서 AI 챗봇을 도입하고 있음
 - 그러나 숙련된 전문가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잡하고 규모가 큰 분야의 청구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동화와 전통적인 처리 방식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
- 보험산업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과 공존하면서 신기술인 AI 기술을 접목시켜야 하는 전환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
 - 영국 보험사의 33%는 AI를 사업 운영에 원활하게 통합시키는 것이 가장 주된 관심사라고 답함
 - 28%는 규정을 준수하면서 AI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으며 20%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함
 - 13%는 AI를 적절히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하였으며 12%는 직원의 AI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
- Gallagher Bassett은 보험산업의 AI 도입에 대한 모범 사례를 확립해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고 데이터 보안과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켜 AI 활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함

인슈어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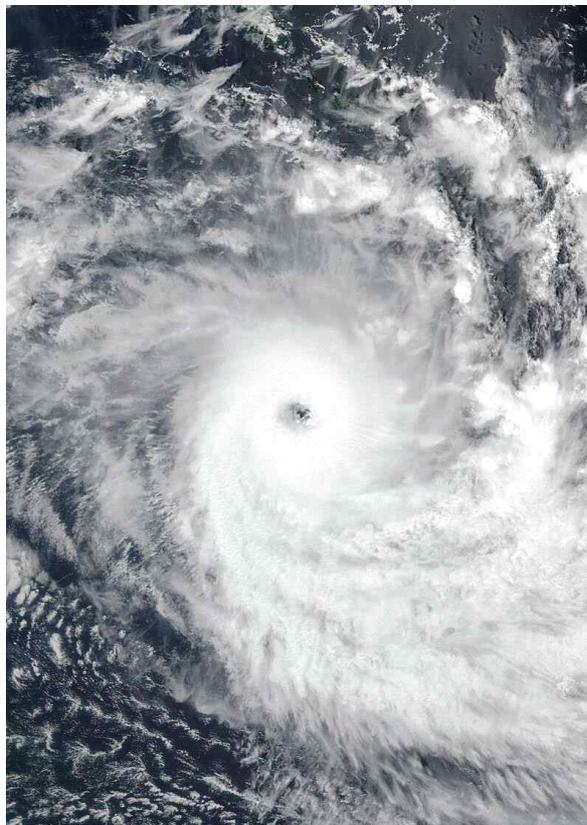
출처 : INSURANCE JOURNAL(2024.07.15.) AI Chatbots, Gen AI Set to Revolutionize Insurance Claims Processing: Survey



QBE, AI 기반 인슈어테크를 활용하여 보험 청구 프로세스 개선

- 손해배상 청구 솔루션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 보험회사인 QBE는 호주에서 지리학적 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여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개선
 - 2023년 12월 퀸즐랜드 북부에 홍수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킨 사이클론 'Jasper'로 인한 보험계약 관리에 대응하여 QBE는 공간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위험과 청구를 관리하는 인슈어테크 기술을 활용

<2023년 12월 8일 오후에 촬영된 Jasper>



- QBE의 AI 솔루션 기술을 사용하면 보험에 가입한 부동산의 위치를 보여주는 공간 데이터를 위성 이미지와 결합하여 기상 현상의 영향을 실시간으로 평가 가능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에서 어떤 자원과 지원인력이 필요한지, 또 어떤 지점에서 가장 필요한지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 현장 검사와 보고서 등 불필요한 절차를 없앨 수 있었음
- QBE는 앞으로도 AI를 더욱 심층적으로 활용하고 접목시켜 날씨와 자연 재해에 대한 더욱 개선된 위험 관리 및 청구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출처 : Insurance Business(2024.06.26.) QBE turns to AI for weather claims response





Prudential이 AI와 보험의 결합을 위해 Google Cloud와 협력

- 다국적 보험회사인 Prudential은 Google Cloud와의 협력을 통해 AI Lab을 설립해 혁신적인 AI 기반 제품 및 앱을 개발할 예정

<각 사의 로고>



- Prudential의 AI Lab은 Google Cloud와의 협력을 통해 올해 말 싱가포르에서 출범할 예정
- AI Lab은 Prudential이 머신 러닝과 생성형 AI의 도입을 통해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기술 중심 유통과 양질의 저렴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 Prudential의 15,000명 직원은 AI Lab 내의 샌드박스 환경을 활용하여 최첨단 AI 모델, 안전한 생성형 AI 솔루션, 포괄적인 데이터 분석 도구에 접근할 수 있음
- 특히 Google Cloud의 건강 관련 AI 기술을 바탕으로 건강 보험 분야의 AI 앱을 개발하여 사업 효율성을 개선하고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장에서 Prudential의 입지를 강화할 예정
- Prudential과 Google Cloud 측은 건강 보험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기업 간 협력을 심화해 보험 산업에서 혁신을 주도할 것임을 밝힘
 - 특히 파트너십을 통한 디지털 혁신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보험, 건강 및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힘

인슈어테크



출처 : FINTECH GLOBAL(2024.08.16.) Prudential partners with Google Cloud to build the future of insurance with AI



“홍수 나면 보험금 지급”...지수형 날씨 보험 나온다

-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이상기후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다양한 보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서 이미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지수형 날씨보험’을 출시 준비 중
 - 일본의 손보재팬은 태양광발전 업체가 일조시간 부족으로 발전량이 떨어질 경우 손실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을 판매
- 지수형 날씨보험은 기온이나 강수량 등 정량화할 수 있는 특정 지표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바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는 금융상품
 - 전통적 기후보험에서는 재물상 손해의 보상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치느라 보험금 지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 지수형 날씨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시 강우량과 같은 기준 지표를 미리 정하고, 보험 기간 중 해당 지표를 웃돌거나 밑도는 사건이 발생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홍수 등으로 물적 피해를 받는 즉시 구제받을 수 있음

<지수형 날씨보험 개요>

지수형 날씨보험

특징	날씨 관련 지표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보험금 자동 지급
기준 지표	기온, 강수량, 일사량 등
장점	신속한 보험금 지급 가능 신청·심사 등 복잡한 절차 생략
국내 출시일	2024년 이내

- 국내에서는 항공기 출발 시간이 얼마나 지연되는지에 따라 보험사가 항공사나 항공기 이용객에게 사전에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항공기 지연 보험’으로 첫 출시될 전망
 -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숙박비와 식대 등 체류비용 발생과 관련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는 기존 실손형 항공기 지연보험과 달리 약정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 없음

출처 : 한국경제(2024.07.21.) “홍수 나면 보험금 지급”...지수형 날씨 보험 나온다

파이낸셜뉴스(2024.07.14.) 항공기 지연·결항 때 증빙자료 제출없이 보험금 받는다





MZ세대 고객 모시기...보험업계, '임베디드 보험' 시장 선점 경쟁

■ 국내 보험업계가 '임베디드(Embedded·내장형) 보험*' 시장 내 사업 확장 중

* 비(非)보험사의 상품·서비스 구매 시 보험사의 보험상품이 내장돼 제공되는 서비스

■ 삼성생명은 건강검진 예약 플랫폼과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과의 제휴를 통해 관련 보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

- 건강검진 예약 플랫폼 '착한의사'와의 제휴를 통해 건강검진 도중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검진센터로 대중교통으로 이동중 발생하는 재해 장애에 대해 보장하는 '착한의사 내시경 안심 보장제' 서비스를 출시, 착한의사 앱을 통해 건강검진을 예약한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

<삼성생명과 착한의사 제휴를 통한 임베디드보험 출시>



- 그 외에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오픈플랜'과 제휴해 '굿데이 일상생활플랜보험'을 출시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나만의 닥터',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과 제휴해 관련 서비스 제공

■ 생명보험사 외에도 다수의 손해보험사들이 임베디드 보험 선점을 노리고 있음

- KB손해보험은 '대학생 임베디드 신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도 임베디드 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인터파크트리플'과 제휴해 '여행취소보험' 상품 출시를 준비

■ 2030년 글로벌 임베디드 보험 시장 규모는 7,000억 달러(약 968조 원)으로 전망되며 특히 인슈어테크 기술과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 결합된 임베디드 생명·건강 보험은 3조 달러(약 4,000조 원) 이상의 시장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 임베디드 보험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험 가입이 이뤄져 보험에 대한 구매 저항을 낮추고 MZ세대를 잠재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성장세가 기대

출처 : 인사이드코리아(2024.07.15.) MZ세대 고객 모시기...보험업계, '임베디드 보험' 시장 선점 경쟁

인슈어테크





메리츠화재, AI기술 접목으로 “고객 이해도·편의성 향상”

- 메리츠화재의 인슈어테크가 활용된 서비스 ‘시음성봇’과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 (이하 메리패스)’ 등이 매출 성장을 견인하며 현업에서 성공적으로 안착
 - 2023년 3월 도입된 ‘메리패스’는 자체 개발한 화면공유(미러링) 기술로 고객에게 보험 관련 표·이미지와 설계사의 음성 설명을 동시에 제공하며 별도의 설치 없이 모바일 웹을 통해 이용가능
 - 미러링 기술로 설계사가 원격으로 중요 내용을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설명하면 고객의 화면에도 즉시 동일하게 구현되어 기존 음성통화 방식 대비 고객 이해도와 편의성을 크게 향상
 - 2022년 8월 도입된 ‘시음성봇’은 AI가 설계사를 대신해 중요 내용을 안내하는 서비스로 머신러닝으로 보험 용어와 기존 상담 이력을 학습해 실제 상담원의 업무처리 형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 인슈어테크 활용을 통해 TM채널의 2023년 장기인보험 매출은 전년 대비 20% 성장하였고 이 중 70% 이상이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체결
 - 특히 월별 신계약 건수 중 메리패스를 통해 가입한 비율은 2023년 3월 7.6%에서 2024년 3월 51.2%로 1년 만에 7배 가까이 증가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TM채널의 월별 신계약 건수>



인슈어테크



출처 : 이코노믹리뷰(2024.08.05.) 메리츠화재, AI기술 접목으로 “고객 이해도·편의성 향상”



KB손보, 생성형 AI 주목...디지털 고도화로 '똑똑한 보험' 만든다

- 인공지능(AI)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대면 영업 채널을 위주로 아날로그 산업의 전형으로 분류되어오던 보험 분야에서도 AI·빅데이터를 위시한 디지털 전환이 활발
 - 기존 보험산업에 ICT 기술을 융합한 인슈어테크 분야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은 AI로, 국내 보험업계들도 인슈어테크 역량 강화를 통한 디지털 혁신에 주목
- KB손해보험은 국내 보험사들 중에서도 인슈어테크 역량이 앞서고 있음
 - 2017년 6월 보험설계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챗봇 서비스인 'KB나이스챗봇'을 자체 개발,
 - 2019년에는 손해보험 업계 최초로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자동차 고장출동 서비스'를 오픈하여 AI 기술이 활용된 콜봇이 고객의 출동 서비스 의도를 자동으로 파악, 쉽고 빠른 접수가 가능
 - 2023년에는 AI 콜센터 플랫폼 '미래컨택센터(이하 FCC, Future Contact Center)'을 구축하여 음성인식기술과 음성합성기술을 결합한 '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텍스트 분석 기술인 'KB-STA'로 실제 상담원과 같은 생동감을 구현
 - 2024년 4월에는 한국화재보험협회와 AI 기반 위험예측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데이터 공유를 통한 위험예측모델 개발로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 △AI 기반 위험예측 모델의 공동 개발 △데이터 공유 및 분석 기술의 상호 협력 △위험예측 모델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예측 정확도 향상 △AI 기술을 활용한 위험 관리 및 예방 전략 수립
 - 또 LG CNS와의 협업으로 계약심사 전략모델인 '자동차보험 AI 자동심사 시스템'도 개발해 AI가 과거 자동차 사고데이터를 분석해 잠재 고객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기존에 인수가 어려웠던 고객 중 향후 사고발생 확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해짐
- KB금융은 디지털·AI를 그룹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며 영업 모델과 프로세스 전반을 디지털화해야 함을 강조

인슈어테크



출처 : 시장경제(2024.07.16.) KB손보, 생성형 AI 주목...디지털 고도화로 '똑똑한 보험' 만든다



5m 높에서 추락했는데 단순 타박상...웨어러블 스마트 안전기술

-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사고 예방이 중요해지면서 웨어러블형 스마트 안전기술에 주목
 - 웨어러블형 스마트 안전기술은 작업복이나 스마트밴드 등을 통해 작업자의 상태를 실시간 분석, 실제 사고 및 온열질환 등을 예방하는 데 활용
- ‘세이프웨어’의 스마트 추락보호 에어백 ‘C3’는 조끼형 에어백으로 착용자의 사고가 센서에 감지되면 에어백이 즉시 팽창하고 사고 발생 시 관리자에게 전달
 - C3에 내장된 센서는 추락 사고와 일상 동작을 판별하는 기술이 탑재되어 있고 70L 이상의 에어 용량으로 5m 전후의 고소 추락 시 충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킴
 - 에어백 전개 시 착용자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충격과 소음을 최소화하는 전기식 인플레이터를 적용해 자동차 에어백 등에서 사용되는 화약식 인플레이터의 화약 누출의 위험을 제거
 - 또 모바일 앱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위치 기반 정보를 현장 관리자에게 전달

<조끼형 에어백 ‘C3’와 전개도 >



- ‘스토리포유’의 웨어러블 스마트 밴드 ‘무사고 밴드’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심박수와 체온을 복합 분석해 온열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고 예방
 - 작업환경별 맞춤형 위험 지표 설정 기능을 제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폭염에 취약한 고령의 근로자와 당뇨, 고혈압 등 온열질환 민감군 근로자 등의 건강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

출처 : 대한경제신문(2024.08.20.) 5m 높에서 추락했는데 단순 타박상...웨어러블형 스마트 안전기술이 뜬다

